

언어에서의 시간성표현

권영숙(숙명여대)

1. 서론

시간은 다른 사물처럼 물질적인 특성(예를 들어, 무게나 온도)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menchliches Bewusstsein* 속에서 어떤 구체적 현상들의 변화를(해가 뜨고 짐, 날씨가 따뜻해지고 추워짐) 통해서 인지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시간 개념은, 인물이나 장소 등과 같은 개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지발달과정에서 현상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지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은 제 일 언어습득시 형성되어 인지 지식 체계에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 개념에는 시제나 상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범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시 대상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에 규정되어 있는 하위범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상위개념인 시간성 *Temporalität*과 언어와의 관계를 개념 *Begriff*에서 형태 *Form*에로의 연구방식인 개념지향가설 *Konzeptorientierter Ansatz*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지향가설은 언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가 모국어와 함께 습득한 시간의 하위개념들을 중요한 요소로 보며 동시에 언어를 단순히 개념의 표현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개념지향가설이 언어의 형태를 개념을 담은 표현시스템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지시의 문체와 관련하여 독일어, 한국어 등의 여러 상이한 언어시스템들을 동등하게 분석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성이란 무엇이며 시간성의 하위개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v. Stutterheim (1986), Slobin (1973).

- (2) 시간성과 관련하여 독일어 및 한국어의 언어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시간의 하위범주들과 이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표현상에서의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2. 시간성 Temporalität

시간의 상위개념으로서 시간성은 넓은 의미로 사건의 상이한 여러 가지 시간 특성들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시간축선상의 사건의 시간배열 *temporale Einordnung*로서 이해된다. 시간개념의 내적구조는 이미 언급했듯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어떤 구체적 현상들의 변화나 움직임의 인지를 통하여 형성된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또한 간주관적 *intersubjektiv*이다. 시간과 사태와의 관계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²⁾

- (1) 시간과 사태와의 관계를 사태의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즉 사태의 질적 변화 *qualitative Veränderung*(예: 시작, 결과, 변화, 정지 등...)가 시간 특성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태의 고유한 시간적 특성 *inhärente temporale Eigenschaften*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2) 사태를 화자 자신의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태의 시간적 의미는 현실의 시간진행과정과는 무관한 화자에 의해 선택된 관련 시와 연관해서이다.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이러한 상이한 고찰방법들을 *Aspekt*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3) 시간과 사태와의 관계는 추상적 시간척도 *Zeitmasstab*를 기준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사태와 시간개념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2) W. Klein (1987, 1988, 1990), v. Stutterheim (1986, 1988).

세 가지의 시간 의미의 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문장고유의 시간적 특성

첫 번째의 시간 의미의 가능성으로서 사태가 가지는 고유한 시간적 특성을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태내의 여러 문장구성성분들의 어휘적 의미에 의해 표현된다. 사태는 사건Ereignis, 상태Zustand 진행(과정)Prozeß일 수 있으며, 이때 지속Durativität, 정지Punktualität, 기동Inchoativität, 결과Resultativität 등의 의미적 특성들을 가질 수 있으며 지속Dauer과 경계Grenze (recht, links)라는 두가지 자질Merkmale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Bsp. 1: Kim bewahrt einen Brief auf. (dauerhafter, unbegrenzter Zustand)

Kim erhält einen Brief. (begrenzt, punktuelles Ereignis)

이러한 문장 고유의 시간적 특성은 문장의 어떤 한 구성요소(예: 동사양태)뿐만 아니라 아래의 예문처럼, 주어 및 목적어의 수, 혹은 부정어 등의 여러 문장 구성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Bsp. 2-1: Ein Mädchen tritt ins Zimmer ein. (punktuell, begrenzt, S: S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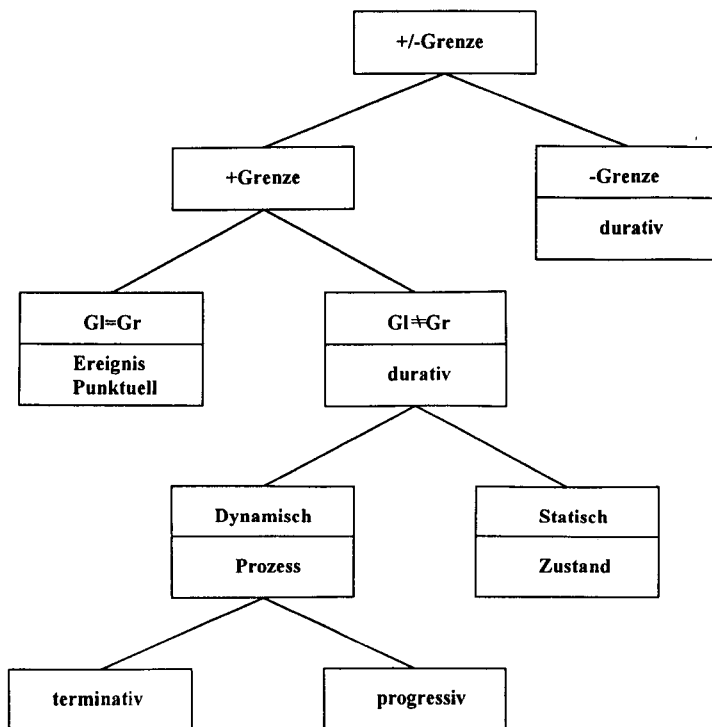
Viele Mädchen treten ins Zimmer ein. (dauerhaft, begrenzt S: Pl.)

Er singt. (dauerhaft, unbegrenzt)

Er singt eine Stunde. (dauerhaft, begrenzt)

Er singt nicht. (dauerhaft, unbegrenzt)

사태의 이러한 시간적 특성들을 v. Stutterheim은 경계 Grenze(+/-G) 와 지속 Dauer(+/-D)의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Stutterheim, 1988, S. 63)



2.2. 상Aspect

상이란 사태에 대한 화자의 여러 가지 고찰방법을 말한다. 이 시간 특성은 외부의 시점이 아닌 화자에 의해 주어진 관련시와 연관되어 결정되어지는 상대적인relative 시간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Comrie가 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As the general definition of aspect, we may take the fomulation that aspects are different ways of viewing the internal constituency of a situation.” (Comrie (1979), S. 3)

상은 완료상 *abgeschlossen*과 진행상 *im Verlauf befindet*이라는 두 가지 하위 범주를 가지고 있으며 Klein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Klein, ESF 1988, S. 17):

- (1) *TM (time of matter) is contained in TT (time of topic)*
or M is viewed as completed
 (2) *TM properly contains TT or M is viewed as non-completed*

예문 3-1에서처럼, 화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주어진 관련시 “어제”와 연관하여 “그가 점심식사요리하다”라는 사태가 화자에 의해 완료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관계를 ‘사건시가 관련시에 포함’ (사건시 ⊂ 관련시)이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이 관계를 완료상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예문 3-2의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과거의 어떤 한 시간간격 (여기서 동사의 과거시제에 의해)인 관련시와 연관하여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태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화자가 부사 “*makgerade*”에 의해 표현하고 있으며 이 두 시간간격과의 관계가 ‘사건시가 관련시를 부분적으로 포함 (사건시 ⊂ 관련시)’이라는 시간관계를 갖는다면 이것을 진행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부사(*gerade*), 동사(*was going...*) 및 불변화사(여기서 *on*)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경계 *Grenze (+/-G)*와 지속 *Dauer(+/-D)*의 두 가지의 의미적 자질에 의해 표기될 수 있다:

Bsp. 3-1: *Gestern kochte er das Mittagessen, dann* (완료상/사건시 ⊂ 관련시/+G)

Bsp. 3-2: *Er kochte gerade das Mittagessen, als* (진행상/사건시 ⊂ 관련시/-Gr. +D)

The light was on. (진행상/사건시 ⊂ 관련시/-Gr. +D)

Mary was leaving the room. (진행상/사건시 ⊂ 관련시/-Gr. +D)

여기서 잠시 상과 문장고유의 시간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이란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고찰방법이라고 한다면, 문장고유의 시간적 특성은 사태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적 특성

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차이점을 v. Stutterheim은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Während jedoch im Fall des AI (temporale inhärente Eigenschaften) die Merkmale (+/-G, +/-D) als Eigenschaften bestimmter Sachverhalte erscheinen, werden sie im Fall des AII (Aspekt) unter einer durch das betrachtende Subjekt eingeführt Perspektive den Sachverhalten, unabhängig von deren realen Verlauf, zugeschrieben.” (v. Stutterheim (1986), S. 71).”

2.3. 시간배열 temporale Einordnung

시간배열이란 사태와 주어진 기점Origo과의 시간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이 시간특성은 현실의 구체적 현상들의 진행과정을 인식하는 인간의식을 바탕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쪽 뻗어 있는 시간축선Zeitachse위에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때 시간축선은 선형성Linearität, 연속성Sequentialität 그리고 직선형Direktionalität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태와 주어진 기점사이의 가능한 여러 가지의 시간연관관계를 기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테마Thema, 관련시Relatum, 시간의 연관관계Temporale Relation.

- 테마(Aktzeit: 사건시): 테마란 시간축선상에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시간간격을 말하며, 이 시간간격의 의미는 또 다른 시간간격과의 연관관계하에 이루어진다.
- 관련시: 관련시란 사건시의 자리매김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기점Origo이다. Klein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점이 존재한다 (Klein, 1987. S. 136ff).

(a) 직시적 기점deiktische Origo: 직시적 기점은 제 일차 기점으로서 대화상황의 지식에 속하며, 발화시Sprechzeit와 청취시Hörzeit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간간격은 대화상황에서 계속하여 변화 이동한다.

- (b) 칼렌다 기점kalendarische Origo: 칼렌다 기점이란 특수한 문화태두리 내에서 규범konventionell로 정해진 기점으로 인간 세계지식Weltwissen 속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커다란 사건시 (예를 들어 예수의 탄생: 기원)를 관련시로 선택할 수 있다.
- (c) 대응적 기점anaphorische Origo: 문장문맥상 주어진 지식인 전입자 정보Teil der Vorgängerinformation를 기점으로 사태의 시간적 의미가 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적 기점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 문장내에서clausal anaphora:

At 4 O'Clock sharp, Chuck came into the Kitchen.

- 종속절interclausal anaphora: Während ich schlafe, klingelt es.

- 앞의 문장에서 intersentential anaphora

- 시간의 연관관계: 시간축선위에 한 기점을 놓음으로써 시간의 연속성은 단절되며 여기에 여러 가지 시간의 연관관계들이 성립하게 된다. Klein은 시간축선상의 테마와 관련시 사이에 가능한 시간연관관계들을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Klein, 1988, S. 23):

(a) 지리적 연관관계topological relation:

사건시와 관련시와의 포함 및 비포함관계

떨어져 있는, 가까운/근접의/겹친/동시적 관계

(distant/near/adjacent/overlapping/simutaneous)

(b) 배열 연관관계order relation: 전before, 포함contained in, 후 after

이러한 두 가지의 연관관계들을 가지고 사건시와 관련시의 가능한 여러 가지의 시간 배열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W. Klein 1988):

Before and Distant	<---->	(I-----I)
Before and Near	<---->	(I-----I)
Before and Adjacent		(<----> -----I)
Before and Oberlappinmg		(<--I->---I)
Contained IN with the special case:		
Simultaneous	(I<---->I)	
After and Overlapping	(I----<I--->)	
After and Near	(I-----I)	<---->
After and Distant	(I-----I)	<---->

위의 이러한 시간배열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Bsp. 4: *Gestern hat in Heidelberg ein grosser Faschingumzug stattgefunden.*

시간간격 a		시간간격 b
Fasching 가장행렬이 일어난 시간간격 (시간적 내적 특성:+G, +D) 시간적으로 배열됨		문장 발화시간간격 (+직시 부사, +동사) 시간적으로 배열됨
	시간의 연관관계	
Ta (Thema)	전/ 하루 떨어진	Tb (Relatum: 여기서 발화시)

위의 예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건시인 테마 (시간간격 a)와 관련시인 레마 (시간간격 b) 사이에서 'Ta 전(하루 떨어진) Tb'라는 시간배열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간배열관계는 동사 및 시간부사의 표현수단을 통하여 나타난다.

3. 시간성 표현을 위한 독일어 및 한국어의 언어수단

한국어와 독일어는 형태론 및 어순상 서로 다른 언어들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어는 형태론상 첨가어agglutinierend에 속하며 어순상 SOV-언어이다.

Bsp. 5:

피- 다 (blüh-en: 동사원형)

피- 고 있 - 었 - 습니 -다 (was going to bloom)

V-stamm - Aspekt - Tempus - Honorativ - Endung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두 언어체계를 시간성과 관련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개념 및 표현수단의 측면에서 어떠한 공통점 및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한국어와 독일어는 문장고유의 의미적 특성, 상 그리고 시간배열 등을 시간 개념의 하위범주로 가지고 있음으로 개념차원에서 비교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현수단차원에서는 두 언어가 시간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어휘 및 문법적 표현수단 등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언어수단과 이들이 표현하는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어와 독일어가 서로 다르며, 기능상 다양하고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1. 어휘적 표현수단 *lexikalische Mittel*

독일어로 시간성을 표현하는 어휘적 표현수단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의 언어수단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독일어에 있어서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들이다:

- 부사: 직시부사 (jetzt, damals), 절대부사(absolute Adv.: Sonntag, 1996),
대용적 부사(anaphorische Adv.: danach, vorher)
- 전치사: bis, vor, nach...
- 접속사: als, wenn, während...

한국어에는 이러한 시간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어휘적인 표현수단들이 존재한다:

- 조사: -부터, -까지, -전에, -안에, -후에...

- 부사: 직시부사 (어제, 지금), 대응적 부사어 (그-전에, 그-후에...)

- 동사의 연결어미 (부사어): 동사의 연결어미는 형태상이나 기능상으로 독일어의 접속사와 비교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독일어의 접속사는 형태상 문법형태소이자 자립형태소인데 반해 한국어의 동사의 연결어미는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의존형태소이며 (동사의 어간 + 동사의 연결어미), 여기에 ‘-동안 (-내에)’, ‘-후에’, ‘전에’ ‘-(고 나서)’, ‘-면 서’ 등이 속한다. 이러한 동사의 연결 어미의 주요 기능은 문장 내에서 두 사태 (a, b)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독일어의 접속사의 기능에 해당한다:

Bsp. 6:

„채플린-이 그-깃발-을 들-고나서,

a: 지시점

C.C.-NOM DEF-Flagge-AKK nehmen-V.K.

운전사-에게 돌려주-려고 부릅니다.“

--연속관계

Fahrer -DAT zurückgeb-V.K. ruf-HON.

(-고 나서, -주어)

(Nachdem C.C. die Flagge genommen hat, ruft (er) den Fahrer, um (sie) zurückzugeben.)

예문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내에서 두 사태 사이의 접속관계가 (여기서, a 후 b) 첫째로 동사의 연결어미 ‘-고 나서’로 그리고 주어의 생략법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한국 동사의 연결어미는 독일어의 접속사와는 달리 부차적으로 텍스트 상에서 문장과 문장사이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2. 문법적 표현수단 grammatische Mittel

독일어나 한국어에서의 동사체계는 시간범주들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표현수단이다. 이 두 언어는 공통적으로 동사 변화를 통해 시제 Tempus 라는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데, 이들은 직시적 의미를 가지고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의 유효범위 Gültigkeitsbereich를 나타내며, 사건시의 정확한 시간정보는 일반적으로 부사에 의해 표현된다. 한국어의 동사체계는 독일어와 비교해 볼 때 또 하나 다른 시간범주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 (be Stamm-ing)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형태소 -고 있 을 통해 상의 가치 aspektueller Wert인 진행상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동사시제체계는 구조상 첨가적이며 후치적postpositional이다: Tempus-Endung. 한국어의 동사시제는 단순시제 (비 표시, Null-Markierung) 와 -(는), -었, -겠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합성시제인 -었(았)었, -었겠 등이 있다. 이러한 시제들은 현재, 과거, 미래를 의미한다.

Die koreanischen Verbformen und ihre Bedeutung			
	Vergangenheit	Praesens	Futur
Grundtempora	-oss da	-da	-gess da
Perfektiv	-ososs da	-oss da	
Progressiv	-go iss oss da	-go iss da	-go iss gess da

독일어와 한국어를 대비 분석함으로써 동사시제와 이러한 시제가 표현하는 시간적 의미와의 관계를 1:1의 관계로 기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시제형태소 -었은 독일어의 과거시제인 -te/ haben, sein+PII 와 의미상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었은 독일어의 과거시제와 같이 일차적으로 과거 사태를 나타내는 시제형태소로 사용되나 (예문 7-1), 독일어의 과거시제인 -te/ haben, sein+PII 와는 달리 부차적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 사건의 완료를 의미하는 상의 가치인 완료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문 7-2).

Bsp. 7:

7-1: 그가 십년전에 살았다. (Er wohnte vor zehn Jahre hier)

7-2: 예쁜 옷을 입었구나! (Du hast eine schöne Kleidung angezogen/Du hast eine schöne Kleidung an)

한국어의 형태소 -겠은 독일어의 werden+V-inf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확실 및 불확실의 양태를 표현하는 양태형태소로, 부차적으로 미래의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미래시제로 쓰인다. 또한 한국어의 시제형태소 -있었은 의미상 독일어의 과거완료시제인 hatten, waren+PII와 비슷한데, 이 두 형태소는 공통적으로 과거의 어떤 다른 한 사태(사태 b)를 기준으로 어떤 한 사태(사태 a)의 전시간성Vorvergangenheit (과거 사태 a ← b)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래의 예문 8처럼, 한국어의 -있었은 독일어의 과거완료시제와는 달리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현재 및 과거의 사태를 동시에 표현하는 데도 사용된다:

Bsp. 8:

철이가 건강했었다. (Chul-Su war gesund. Aber er istjetzt nicht mehr gesund.)
 저 영화배우는 참 예뻐었다. (Die Schauspielerin war sehr schön. Aber sie ist jetzt nicht mehr schön.)

이외에도 한국 동사시제에는 독일어와 비교해 보때 회상적retrospektiv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소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일차적으로 과거의 사태에 대한 화자 자신의 인지가 회상을 말하는 회상적 의미를, 부차적으로 형태소 -있과 같이 과거의 사태를 나타내는 시제 형태소로 쓰인다:

Bsp. 9:

철수가 어제 공부했다. (Chul-Su lernte gestern.)
 철수가 어제 공부하더라 (wie ich mich erinnere, lernte Chul-Su gestern.)

두 예문을 비교해보면 형태소 -있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철수가 공부하다”라는 과거의 실제 사태를 나타내는데 반해, 형태소 -더는 “철수가 공부

하다”라는 과거 사태에 대한 화자의 발화시의 주관적 확실성(*Gewissheit* (“나의 지금 기억으로는”)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강호는 형태소 -더를 “*distanzierte Darstellung von Wahrgenommenem oder Erinnertem*” (Lie 1991 S. 150)”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언어체계를 시간성과 관련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개념차원에서 비교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표현수단차원에서 언어수단과 이들이 표현하는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어와 독일어가 서로 다르며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상위개념인 시간성과 언어와의 관계를 개념에서 형태에로의 연구방식인 개념지향가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첫 번째로 시간성이란 무엇이며 시간성의 하위개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시간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인지발달과정에서 현상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지함으로써 형성되며, 이에 대한 하위범주들이 언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한 시간 범주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바탕하에 계속해서 독일어 및 한국어의 언어체계가 시간성과 관련하여 개념 및 언어 표현수단차원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잠시 살펴보았다. 두 언어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개념차원에서 비교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었으나, 표현수단차원에서 언어수단과 이 둘이 표현하는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한국어와 독일어가 기능상 서로 상이하며 독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성과 언어와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위의 연구관찰이 보여주듯이, 언어사용자의 표면에 나타난 언어형식만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어형식에 의해 표현된 개념이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념지향의 고찰방법은 이러한 연구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Comrie, B: Aspect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1979.
- Comrie, B: Tense, Cambridge 1985.
- Dietrich, R.: Modalität im Deutschen. Opladen 1992.
- ESF (1988): Temporality, Vol.V.
- Flämig, W.; Heidolph, K. E.; Motsch, W.(Autorenkollektiv):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Berlin 1981.
- Klein, W.: Time in Language, London 1994.
- Kwan, Y. S.: Der Gebrauch der Zweitsprache zum Ausdruck von Zeitkonzepten(unöffentliche Magister-Arbeit). Uni Heidelberg 1990.
- Kwan, Y.S.: Temporale Referenz in der Zweitsprache. Frankfurt 1996.
- Lie K.H.: Verbale Aspektualitaet im Korenischen und Deutschen. Tübingen 1991.
- Park J. G.: Probleme der kontrastiven deutschen und koreanischen Grammatik. Frankfurt 1981.
- V. Stutterheim: Der Ausdruck der Temporalität in der Zweitsprache. Berlin 1986.
- V. Stutterheim: Klein, W.: Referential Movement in Descriptive and Narrative Discourse, in: Language Processing in Social Context, Dietrich, R.; Graumann, C.F. (Hrsg.), North-Holland 1989, 39-75.

Zusammenfassung

Ausdruck der Temporalität in der Sprache

Kwon, Yeong-Sook(Sookmyung Women's Univ.)

In dieser Abhandlung wurde im Bereich der Temporalität anhand des konzeptorientierten Ansatzes das Verhältnis von konzeptueller und sprachlicher Repräsentation betrachtet. Die Temporalität ist ein abgeleiteter Begriff, den das menschliche Bewußtsein im Rahmen seiner kognitiven Entwicklung als Maßstab der qualitativen Veränderung und Bewegung von Materie wahrnimmt und systematisch konzeptualisiert. Ihre Subkategorien unterscheiden sich in den Sprachen, da bei den Konzeptualisierungsvorgängen durch die Muttersprache bestimmte begriffliche Kategorien eine steuernde Rolle spielen. In diesem theoretischen Hintergrund betrachteten wir, inwieweit die beiden Sprachen, das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im Bereich des Zeitkonzepts auf der konzeptuellen Ebene und auf der Ausdrucksebene verschieden und gemeinsam sind, und wie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temporalen Konzepten und den Ausdrucksmöglichkeiten ist. Die Temporalität des Koreanischen ist in Bezug auf die Basiskategorien der Temporalität mit dem Deutschen mehr oder weniger identisch. Zum Ausdruck der Zeitreferenz haben die beiden Sprachen gemeinsam zwei explizite grammatische und lexikalische Ausdrucksmöglichkeiten, aber die Art und Weise, wie sie zum Ausdruck der Subkategorien der Temporalität eingesetzt werden, sind verschieden.

In diesem Zusammenhang kann man sagen, daß es zum Verständnis der Temporalität in der Sprache nicht reicht, die sprachliche Formen zu betrachten: man muß die Konzepte berücksichtigen, die durch die sprachlichen Formen ausgedrückt werden.